

	베트남(하노이) 해외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정 걸 기 소 장
		일 시	2025. 3.

CEPA Insight

- 팜 민 찌 총리, 한국기업 대표단과 간담회
- 삼성·SK·LG, 對베트남 대규모 투자 예고
- 경제 '불필요' 규제 최소 30% 축소...행정개혁 가속화
- 지자체들, '재생에너지' 확대 요청...제8차 국가전력계획 조정안

■ 베트남, 팜 민 찌 총리, 한국기업 대표단과 간담회

- 팜 민 찌(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한국기업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신(新)산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 찌 총리는 4일 삼성과 LG, SK, 현대탄공(HTC), 효성, 롯데, CJ 등 현지진출 주요 35개사와 간담회를 열어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우리 기업과 찌 총리의 만남은 지난 1주일간 중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에 이은 5번째 외국기업 대표단 간담회로, 올해 8% 성장 목표를 세운 베트남 정부가 지속적인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 된다.
- 삼성전자의 베트남 사업을 총괄하는 나기홍 베트남삼성전략협력실장(부사장)은 찌 총리에게 하이테크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우대 제도 마련을 우선시해줄 것을 건의했다.

- 고태연 하노이코참 회장은 한국기업들이 남북고속철도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핵심 국책사업에 있어 설계와 제조, 인력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투자자 선정에 있어 한국 기업을 우선 고려해줄 것을 건의했다.
- 하노이코참(KoCham)의 고태연 회장은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베트남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친환경에너지 분야 FDI(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 하이테크 부문의 선두주자로 부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밖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들은 ▲하이테크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 ▲투자기금 ▲수출입절차 간소화 ▲물류시스템 현대화 ▲부가세 환급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 지난해 한국기업들의 대(對)베트남 투자 규모는 7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7.5% 증가한 것으로, 현재 누적투자액은 92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베트남 내 운영중인 한국기업은 1만여곳으로, 전체 고용 규모는 90만여명에 달한다.
-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부문에서 ▲행정절차 소요시간 최소 30% 단축 ▲사업비용 및 비공식 경비 최소 30% 절감, 특히 제도부문에서는 투자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사업요건을 최소 30% 이상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찐 총리는 ▲베트남기업들과 경험 공유 ▲국내 R&D센터 설립 등에 대한 관심 ▲반도체·AI·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와 전략적 혁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우리 기업들에 요청했다.

■ 삼성·SK·LG, 베트남 대규모 투자 예고

- 삼성전자와 SK, LG 등 한국 대표 대기업들이 올해 에너지·첨단제조·지속가능 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삼성디스플레이베트남(SDV)은 북부 박닌성(Bac Ninh)의 기존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에 12억달러 규모 추가투자를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상태다. 삼성은 이를 통해 베트남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조중심지로 개발한다는 목표다.
- SK는 베트남내 3개 LNG발전소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수소 ▲물류 ▲친환경 농업 ▲혁신을 통합한 새로운 에너지허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14일 또 램(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면담에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한 투자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특히 SK리비오가 북부 하이퐁시(Hai Phong)에서 진행중인 생분해소재(PBAT) 공장은 SK그룹이 베트남에 직접 투자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총투자액은 5억달러로 SK는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생분해성소재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 LG디스플레이는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다는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수년간 하이퐁공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생산능력을 확충해왔다. 지난 2020년 2월 7억5,000만달러를 투자했으며 2021년에는 14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했다.

- 기획투자부(현재 재정부에 통합)에 따르면 지난달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이 43억3,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8.6% 늘어난 가운데 국가별 투자액은 한국이 13.4배 급증한 12억5,000만달러로 전체의 28.9%를 차지, 최대투자국에 이름을 올렸다.
- 지난 1월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액은 920억달러로, 최대투자국 지위를 확고히 유지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77>

■ 베트남, 경제 '불필요' 규제 최소 30% 축소...행정개혁 가속화

-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또 램(To Lam)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 24일 주재한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베트남은 행정 및 제도개혁을 통해 늦어도 3년내 아세안 3위에 해당하는 투자환경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규제개혁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 베트남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최소 8%를 달성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의 발판을 마련, 2045년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 정부는 이러한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부문에서 ▲행정절차 소요시간 최소 30% 단축 ▲사업비용 및 비공식 경비 최소 30% 절감, 특히 제도부문에서는 투자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사업요건을 최소 30% 이상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30%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 램 서기장은 "베트남은 향후 수년간 고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법규는 디지털 경제와 혁신, 국제통합, 특히 금융기술과 인공지능(AI), 플랫폼 경제, 전자상거래와 경제특구의 급속한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경제 및 기술특구에 대한 특별 세제혜택, 이들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럼 서기장은 국제금융센터에서의 개방형 금융정책 시행과 글로벌 물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면세항만(duty-free ports) 모델의 연구, 인재유치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 포상 특별 정책 마련, 국가투자원스톱포털 개설 등을 정부에 지시했다.
- 정부는 법적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투자 프로젝트의 법적·집행상 난제 해소 ▲조건부 사업 분야의 규정 및 질적 개선 ▲전문영역 검사·관리 현대화 ▲정보기술(IT) 활용 범위 확대 및 당국간 자료 연결성 강화 ▲사업개발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5가지 핵심 분야에 맞춰 사업 및 투자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09>

■ 베트남 지자체들, '재생에너지' 확대 앞다퉈 요청...제8차 국가 전력계획 조정안

- 베트남이 경제성장 목표에 따른 전력수요 보장을 위해 국가전력계획 조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전국 각 지자체가 잇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확대를 건의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자 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 공상부는 지난 23일 제8차 국가전력계획(PDP8) 조정안에 관한 전국 온라인 회의를 열어 각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 메콩델타 박리에우성(Bac Lieu)도 조정안을 통해 풍력발전 1GW, 태양광 발전 500MW를 각각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박리에우성의 재

생에너지 잠재력은 풍력발전 8GW 이상, 태양광발전 6GW 이상으로 각각 평가되고 있다.

- 지난해 말 기준 베트남의 전력원 가운데 태양광발전은 약 17GW, 풍력발전은 5GW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현재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에 달한다. PDP8은 2030년까지 풍력발전 약 28GW, 태양광발전 약 13GW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정부는 PDP8 조정안을 통해 해상풍력발전 개발 시점을 2030년 이후로 미뤄 2035년 발전용량을 약 17GW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신 향후 5년간 육상 및 근해풍력발전 용량을 2만7,791~3만4,667MW 규모로 확대해 기존계획보다 약 15% 늘릴 계획이다.
- 또한, 옥상태양광이 4만6,459~7만3,416MW 규모로 이전보다 2.6~5.3GW 늘었는데, 정부는 옥상태양광이 신속한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2026~2027년 전력용량을 손쉽게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중부고원 닥락성(Dak Lak)의 르우 반 코이(Luu Van Kho) 공장국장은 “일부 투자자들이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투자를 타진했지만, 법적 규정이 부재한 탓에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없었다”며 이러한 투자자 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 베트남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최소 8%를 달성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두자릿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만들고 이를 통해 2045년 고소득 국가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이다. 이 같은 경제성장 목표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율은 연 12~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상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PDP8 조정안을 마련 중이며 오는 28일까지 초안을 만들어 정부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다.